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들

(마 10:5-15)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을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셨지만 그들에게 명하셨던 일은 결코 보통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할 곳, 해야 할 말,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매우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1. 제자들이 가야할 곳

주님께서서는 전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예수님의 이 명령은 결코 민족적인 편견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행 1:8).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 하는 열정이 없이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리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은 조금만 열심을 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2. 제자들이 해야 할 말

제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말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7절). 천국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들이 나가서 해야 할 두 번째 말은 'shalom'입니다. 'shalom'은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먹을 것을 없어서 굶주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상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3.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전도자는 전도를 하며 무엇보다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병을 고쳐주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8절).

그런데 전도자들은 이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 가는 일꾼들이 주인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간다면 사명보다는 염려가 더 먼저, 더 크게 보이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든지 못하든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항상 승리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Works the Disciples had to do

(Matt. 10:5-15)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generally called people and made them disciples but the work they did was uncommon. The place where disciples went, the words that they spoke, and the works they did were unusual.

1. The place where the disciples went

Jesus commanded the disciples, first of all, not to go among the Gentiles or not to enter any town of the Samaritans, but go rather to the lost sheep of Israel (v.5). This command of Jesus was never a national prejudice but instructions for spreading the Gospel (Acts 1:8).

The spreading of the Gospel should start in a nearby town. Without any passion to preach the Gospel to a nearby neighbor, we are not able to preach the gospel in the distant lands. The command of Jesus was that the disciples should start with what they were capable of carrying out. Jesus never put pressure on them to do more work. Therefore, if we try to do a little harder than what Jesus assigned us; we are able to fulfill it.

2. The word that the disciples did

The first word that the disciples did was to proclaim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v.7). The kingdom means Jesus, the word.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means that because Jesus is near, you should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The second word that disciples used is 'shalom'. Shalom does not mean that because nobody starves, their body, mind, and spirit are full of God. When your spirit is full of joy and grace and no anxiety and no worry these feelings come from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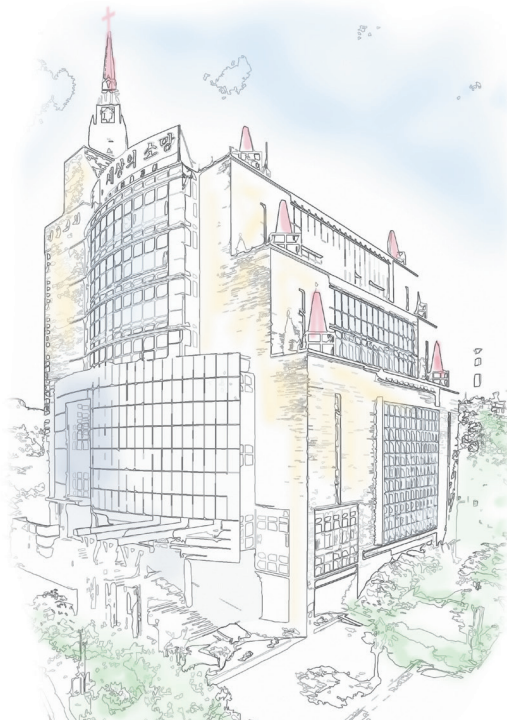
3. The work that the disciples did

The disciple was preaching the Gospel and distributing God's grace. They healed disease; raise the dead, drove away evil spirits. In other word, they should distribute God's grace (v. 8).

However, when they do all of these, the disciplines trusted God completely. It is no wonder that employees who receive their employer's order trust their employer. If they go out to preach the Gospel without trusting Jesus, and with anxiety and worry, they cannot help failing because anxiety is bigger than their calling.

My beloved Christians,

Don't be disappointed when you evangelize. Whether we can save a soul or not, Jesus always knows who obeyed his command. By obeying Him,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the disciples of Jesus who always have a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주제 :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갈 5:22-23)
18일(월)-23일(토) 새벽 5시 / 금요기도회는 개인기도로

2013 사명자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는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온 교회는 11월 18일(월)부터 23일(토)까지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갈 5:22-23)"라는 주제로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로 새벽 5시에 모인다. 11월 23일 마지막 토요일은 온가족 특별새벽기도

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다음세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새벽기도회 후 직장으로 바로 가실 분들은 8층 만나홀에서 간단한 조식을 할 수 있다.

교회창립기념주일/추수감사절/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다음 주일 |, II, III 부 예배 시 성찬식 거행

우리교회는 다음 주일을 교회창립22주년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킨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고, 찬양예배시간에는 교회창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

사하며 제12대 장로, 제13대 집사, 제12대 권사 임직식을 거행한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교회창립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필리핀 태풍 재난 돕기 특별 구제헌금 드리기로

11월24일(주) 예배 시간에

지난 11월8일(금)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강타한 필리핀 타클로반 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으며 사상자의 수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필리핀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우리교회도 이번 필리핀이 입은 큰 재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다음 주일(11월24일) '필리핀 태풍 재난 특별구제헌금'을 드린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헌금을 준비하여 재난을 당한 필리핀 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한다.

사진출처: 유니세프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10)

(문 109)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답) 열왕기하8:25에 의하면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십이 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하9:25에 의하면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십일 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사는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까? 왜 같은 책에서 일 년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당시 새 왕이 즉위할 때엔 다음해 신년이 될 때까지는 통치 연수에 가산하지 않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북 왕국에서는 930B.C부터 798B.C까지 비추가연도제도(non-accession year system)를 사용했으나 여호아사스의 아들 여호아쉬의 통치로부터 722B.C 사마리아 함락 시까지는 추가연도제도(accession year system)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남 왕국에서는 930년부터 여호사밧(848-841)의 아들 여호람 통치 원년까지 또는 여호사밧이 죽기 수년 전 즉 850B.C까지 추가연도제도(accession year system)가 사용되었습니다. 850B.C년 이후 유다 왕국은 비 추가연도제도(non-accession year system)로 바뀌었고 아하시야(835-796)의 아들 요아스 통치까지는 추가연도제도(accession year system)로 다시 복귀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841B.C에 왕이 되었으므로 이때는 북 왕국은 추가연도제도(non-accession year system)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십이 년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년만 치리하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요람을 죽일 때 같이 죽임을 당한 고로 실제로 그 해는 비 추가연도제도(non-accession year system)에 의하면 요람의 십일 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기사는 서로 상충되거나 잘못된 보기가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증명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제7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11월24일(주) 오후 2시30분, 101호

2006년에 조직된 사랑부 특별활동반이 그간 꾸준히 이어져 올해로 벌써 제 7회 천사들의 음악회가 열린다. 워십, 중창, 벨플레이트, 난타, 피아노 독주, 시낭송, 핸드벨 / 멜로디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준비된 성극 및 전체 합창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11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4회) 이상호2 집사(16교구)
- (필사 1회) 이영자1 권사(11교구)
- (5독) 박정순1 권사(3교구) 서영세 권사(6교구)
- (3독) 주경자 권사(5교구) 강영순 권사(6교구) 여현진 권사(12교구)
- (2독) 강신행 권사(1교구) 백명자1 권사(1교구)
- (1독) 김정신 권사(4교구) 이영숙 권사(4교구) 최학인 장로(5교구) 임윤자 권사(8교구) 이남성 집사(9교구) 박화실 집사(11교구) 김순진 집사(13교구)



주님의 자녀답게 사명자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내 생명을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직분까지 주시어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 주님은 살며시 다가와 부르셨는데 그때는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속에 빠져 내가 떳떳하게 살면 된다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밝은 곳에서는 체면과 위선으로 선량한 구도자의 모습으로 지내고 어둠이 오면 아집과 독선, 허영과 교만으로 명예를 찾아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공허한 내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겨울이 오기 전 이마에 잔주름 늘기 전 오직 의지할 곳은 주님 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파란하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김광룡집사 (스데반회회장, 11교구)



사진 : 최영철 집사, 이준태 성도(멀티미디어팀)



전도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윤봉준 장로 (9교구)

전도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몇 년째 주일 찬양 예배 후 순례자 2~300부를 집에 가져와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7일 오전 갑자기 소방차 4대가 싸이렌을 울리며 불난 옆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수백 명이 우르르 몰려나와 구경을 하였습니다. 나는 제발 건물 속에 있는 자들이 다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여든 사람들에게 순례자를 돌리며 "우리가 언제 무슨 일로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때는 한 시간여 동안 순례자를 돌렸는데 그 날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평소예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야유하던 동네 사람들도 그 날은 예외 없이 순례자를 다 받아갔습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나봅니다.

3년전 충청도에 사는 친구를 전도한 것 또한 저에게는 큰 간증거리입니다.



니다. 저는 군대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때 나를 전도한 친구의 이름이 유재희였는데 여처구니 없게도 3년 전 그를 만났을 때에 그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한 후 친구집으로 내려가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 싶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마침내 친구 유재희와 그의 부인, 그리고 3남1녀, 며느리, 사위와 손자손녀까지 16명을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새벽기도회까지 나가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새생명축제를 정점으로 올해의 사명자대회가 다음 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못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뿌린 복음의 씨가 언제 어느 때 싹을 틔우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물을 주시고 기르시는 이는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열심히 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순례자를 들고 교회를 나섭니다.

제7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많은 영혼의 천사들



강성은 집사 (사랑부 부장)

연약한 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사랑부를 각별히 아껴주시는 성도님들께 사랑부 교사 모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06년에 조직된 사랑부 특별 활동반이 그간 꾸준히 이어져 올해로 벌써 제 7회 천사들의 음악회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십 (모아요 외 1곡 / 박상기 외 7명), 중창 (감사해 외 1곡 / 박희욱 외 3명), 벨플레이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외 1곡 / 임진호 외 5명), 난타 (빛의 사자들이여 외 1곡

/ 박지영 외 6명), 피아노 독주 (이혜진), 시낭송 (잠언 16장 외 / 민승기, 이미진), 핸드벨 / 멜로디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외 1곡 / 최지훈 외 4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준비된 성극 및 전체 합창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는 11월 24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1층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영혼의 사랑부 천사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이 음악회를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중강 답사

교육을 통한 개혁 - 목회자세미나

최도영 목사 (장자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하고, 제2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변화 곧 개혁을 위해서는 목소리(주의, 주장)도 좋지만 개혁은 교육을 통한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지만 그렇다고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있어서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신학세미나 곧 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것이 참 개혁이요, 진정한 성장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 알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서울교회 원로목사이신 이종운 목사님께서 일찍부터 사명감으로 이 모임을 섬겨주셨으며, 이어서 담임목사이신 박노철 목사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겨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게다가 2층에서 등록 업무로 섬기시는 분들의 밝

고 친절한 모습으로의 섬기심은 언제나 그날의 시작을 즐거움과 감사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 세미나실 입구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웃으며 머리 숙여 맞이하며 질서 있게 섬겨 주신 분들로 인해 언제나 편안한 수강을 할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층에서 식사로 섬기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의 음식맛은 어찌 그리 좋은지 때로 밖에서 식사를 하고 참석할 수도 있었으나 서울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일찍 와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세미나를 위해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울교회 담임목사님과 당회원님들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4학기를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하고 좋은 모임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며,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듯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면에서 섬겨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보답은 배운 내용이나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들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해 나가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것인 줄 알아 그리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약속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8일(월)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모임을 소집한다. 19일(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한다. 21일(목) 중국인목회자 선교대회에서 강의한다. 23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월례회 및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갑진 장로 11월19일(화)-23일(토) 이재울 선교사와 함께 캄보디아 기독교인 제자훈련(여호수아 캠프) 주강사로 선교출정(서울교회 설립, 캄퐁츠낭 마하나임 교회에서 실시)

■ 주간식당방사 : 마리아전도회(11.17) 한나전도회(11.24) ■ 금주의 식사 : 최양진 장로 강운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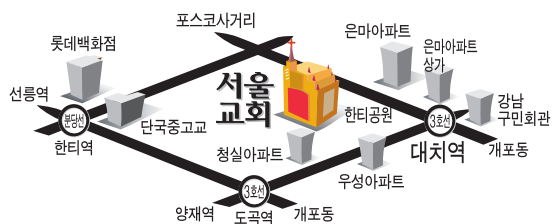
1. 새생명 축제를 통해 교회를 방문하시고 결신을 하신 모든 VIP들이 잘 정착하고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2. 교회창립 22주년감사, 추수감사, 임직감사, 성찬식을 위해 11/18일(월)~23일(토)까지 있는 특사에 모든 성도들 참석하여 큰 은혜 받도록
3. 교회의 큰 행사들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도록
4. 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재난을 당한 필리핀을 위해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모여져 큰 위로의 통로가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